

박인현 교수의 '다시 찾은 우산'

'올해의 작가상' 수상 기념 초대전

전북대학교 박인현 교수(예술대 미술학과)가 월간 '미술세계'가 주관하는 '2018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돼 수상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미술세계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초대는 12일 오후 6시.

작가의 근작을 중심으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전통 회화의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변용과 우산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1989년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에서 선정하는 '석남미술상'을 수상하며 '우산 작가'로 널리 알려진 박 교수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펼쳐내는 작가 정신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15년, 작가는 '다시 찾은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개최하며 우산이라는 소



재로 돌아왔고, 지난 세월 동안 우산이 지닌 의미는 더욱 깊고 넓어졌다. 우산은 인간의 상징으로서 인간의 삶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관한

작가의 가치관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2017~2018년에 제작한 근작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중국 전시에서 선보인 작업을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의 고전 명작들을 우산을 통해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우산 작업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게 펼쳐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박인현 교수는 1957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고와 홍익대 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내외에서 42회의 개인전과 400여회의 단체 기획 초대전에 출품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김영태 기자

"우리의 고향과 전통문화예술을 오감으로"

고창농악전수관, 7일 '갤러리 굿' 개관

(사)고창농악보존회에서 고창농악 전수, 공연, 체험, 그리고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고창농악전수관의 새로운 문화 공간 '갤러리 굿' 개관식을 오는 7일 오후 5시에 갖는다.

우리 고향이 품고 있는 마음과 정신을 미술작품으로 만나는 공간, '갤러리 굿'은 가, 무, 악 일체의 전통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써 굿의 미학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갤러리 굿'의 개관전으로 유창한 천육희 작가의 전시회, '고창굿-작은 역사'전은 고창에서 나온 작家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본 고창의 흥취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시회이다.

고창농악보존회에서 11년 동안 기획실장을 역임했던 천육희 작가는 광주대학교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으며 2000년 5월 고창농악전수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풍장굿 재연, 방학전수, 문화재 발표회, 각 마을에서 행해지는 보름굿, 각종 공연, 교육 현장에서 굿과 사람, 고창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사진에 담았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들은 천육희 작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고창굿과 함께 한 기록이자 작은 역사이다. 전시를 준비한 천육희 작가는 "사진의 모델과 풍경이 되어준 인연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전시 준비과정에서 고창의 무형유산인 고창굿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고창농악전수관에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향과 전통문화예술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관전 '고창굿, 작은 역사'전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지난해 열린 제49회 익산예술제 개막식 자료사진.

'예술로 하나되는 희망찬 익산'

익산예술제 이달 7일 개막

'제50회 익산예술제'가 오는 7일~12일까지 6일간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등지에서 열린다.

'예술로 하나되는 희망찬 익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7일 오후 7시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연예협회의 '제24회 송리가요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전시는 송리문화예술회관 1.2층 전시실에서

7일~9일까지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및 제37회 익산 전국사진공모전'과 '문인협회 시화전', '익산미술협회 주관으로 7일~12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제47회 익산미술협회 회원전'이 열린다.

8일 오후 4시에는 국악협회 주관으로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국악공연 '풍류'가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3시와 7시30분 소극장 아르케에서 연극협회의 주관으로 연극 '오늘 할 일 내일로'가 공연된다. 9일 오후 5시에는 무용협회의 주관으로 익산무용제 '소슬비탈 부는

넋' 공연이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11일 오후 7시에는 음악협회의 주관 '2018 시민과 함께하는 Music Festival'이 진행된다.

김영규 회장은 "익산예술제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익산문화예술이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연을 당부 드린다"며 "익산예술인들의 정서와 익산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예술제를 관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예술제는 (사)한국예총 익산지회(대표 김영규)가 주최하고 국악·무용, 음악, 연극문인·미술·연극·사진작가협회 등 8개 협회가 주관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감성 책 축제 '달빛소풍' 성료... 500여명 찾아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 지난 1일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상동시민공원에서 개최한 열린 책 축제 '달빛소풍'에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중앙도서관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도서관 내부와 야외공원(상동시민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영어그림책의 가치'의 저자 전은주 작가의 북토크를 비롯하여 중앙도서관 문화강좌 수료자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된 책 놀이테트와 아광부채 만들기 체험테트, 도서교환전 등이다.

시민들은 상동시민공원 곳곳에 돛자리를 펼

치고 도시락을 먹으며 책 소풍을 즐겼다. 야외무대에서는 종이 회전극, 버블풍선공연 등이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아카펠라음악연구회(전북지역 초등교사모임) '꽃밭장미'의 아카펠라 공연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 곳곳에 전구와 꽃으로 꾸며진 포토존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사진을 찍으며 책 축제를 만끽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 여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달과 책이 주는 즐거움을 소풍으로 표현한 '달빛소풍'이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